

고치현 유스하라초(梶原町)의 집락활동센터 사업

고치현 유스하라초



상황(배경, 목적 등)

유스하라초에서는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인구 감소로 인해 마을 공동체 기능의 유지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집락활동센터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과 꾸준히 대화하며 지역의 과제를 파악해 왔다. 이 과정에서 주민 스스로가 위기의식을 공유하게 되었고, '체념'에서 '다시 활기찬 지역으로 만들자'라는 의욕으로 의식이 변화하고 있다. 지자체 공무원도 주민과의 대화에 참여하여 함께 지역의 비전을 도출하며, '유대'와 '자립'이라는 키워드로 '할 수 있는 일부터 추진하자'라는 슬로건 아래 활동이 시작되었다.

내용(사업 개요 등)

【집락활동센터 마쓰바라】

- 주유소 운영
- 지역 식재료 가공·판매 시설 '아이노사토' 를 통한 농산물, 가공품, 잡화 판매
- '도부로쿠' 제조를 통한 특산품 개발

【집락활동센터 하쓰세】

- 한국과의 교류 강점을 살린 '다카토리 김치' 개발
- 한국식 사우나 '찜질방' 을 갖춘 레스토랑 운영

【집락활동센터 시만가와】

- 주유소에 지역 특산품 매장 등을 갖춘 복합형 연료 공급
-

-
- 시설 조성
 - 도시락 배달 서비스와 유휴 농지를 활용한 쌀농사, 쫄면 가공 및 판매
 - 【집락활동센터 오치멘】
 - 폐교 시설을 숙박 체류 시설로 개조하여 간이 숙박업 개시
 - 조리실을 활용한 특산품 가공 그룹으로 지역 식재료 수익화 시스템 구축
 - 집락영농조직 설립, 경작 방치 농지 대책 추진
 - 【집락활동센터 유스하라 서부】
 - 유해 야생동물 사냥을 통한 지비에(수렵육) 상품 개발
 - 전국 최초의 이동식 수렵육 처리 차량 ‘지비에 카(Gibier Car)’ 도입
 - 【집락활동센터 유스하라 동부】
 - 옛 어린이집을 지역 활동 거점 시설로 정비하여 지역 주민의 모임의 장으로 활용
-

효과(특징, 선진성, 향후 전개 등)

- ◇각 집락활동센터의 사업 운영을 위해 인력을 고용하고 있으며, 상근과 비상근직을 포함하여 약 45 명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 ◇지역에서 계승된 특산품을 활용한 상품 개발을 통해 경제가 순환되어 주민들의 지역에 대한 자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도시락 배식 서비스 등을 통해 대화를 겸한 돌봄 활동을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안심하고 활기찬 생활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